

거지 나사로

-열두 번째 이야기-



75Page

옛날에 아주 큰 부자가 살고 있었어요. 그는 화려한 집에서 비싼 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매일 최고급의 좋은 음식을 먹으며 호화롭게 살았어요.
부자는 매일 사람들을 불러 잔치를 벌였어요. 부자에게는 기쁘고 즐거운 일
뿐이었어요. 부자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았어요.



76Page

부자의 집 앞에는 나사로라는 가없는 거지가 살고 있었어요.
나사로는 부잣집 대문 앞에 누워서 몸에 생긴 부스럼 때문에 괴로워했어요.
그는 더러운 옷을 입고, 혹시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음식이 없나 살펴 남은
음식을 먹으며 지냈어요. 나사로의 초라하고 냄새 나는 모습에 아무도 그를 귀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나사로는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77Page

그러던 어느 날, 거지 나사로가 죽었어요.
나사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들을 따라서 천국으로 들어갔어요. 그곳에서 거지
나사로는 하나님을 아주 잘 믿었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어요.



78Page

곧이어 부자가 죽었어요. 부자는 지옥에 떨어져서 끔찍한 고통을 겪었어요.
지옥은 꺼지지 않는 불바다여서 너무나 뜨거웠어요.
부자는 너무 괴로워서 비명을 질렀어요. 목이 마른 부자가 물을 찾았어요.
하지만 그곳에는 마실 물이 없었어요.



79Page

고통스러워하던 부자가 우연히 고개를 들어 멀리 천국을 바라보게 되었어요.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거지 나사로는 우리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잖아!”
부자는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부자는 나사로가 너무 부러웠어요.
그래서 그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외쳤어요.
“아브라함님! 살려 주세요! 제가 불꽃 속에서 온 몸이 타들어가고 있어요. 너무
뜨거워요!
제발, 나사로를 보내서 손에 물을 적서 몇 방울만이라도 제 허를 시원하게 해 주세요!”
아브라함이 대답했어요.
“부자야, 나사로는 너에게 갈 수 없단다. 너는 세상에서 살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네
자신만을 위해 행복하게 살았지만, 나사로는 배고프고 병들어 불행하게 살았던 것을

기억하렴. 그래서 나사로는 이 곳 천국에서 행복하게 살고, 너는 지옥에서 벌을 받는 것이라네. 그리고 너와 우리 사이에는 큰 계곡이 있어서 우리가 그곳으로 갈 수도 없고 그곳에서 이곳으로 올 수도 없단다.”



80Page

부자는 슬퍼하며 간절히 아브라함에게 부탁했어요.

“그러면 나사로를 다시 살려서 우리 집에 보내 주세요.

그래서 우리 가족들과 형제들에게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어서

그들은 이 고통 받는 곳에 오지 않도록 해 주세요!

아브라함이 대답했어요.

“그들에게는 그들을 인도할 모세와 선지자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잘못을 뉘우치지 않으면,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도 듣지 않을 것이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만일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우리 가족들과 형제들에게 내 말을 전해 주면 잘못을 뉘우치고 예수님을 믿을 것입니다. 그러니 제발 도와주세요!”

부자는 간절하게 말했어요.

아브라함이 부자에게 다시 말했어요.

“그렇지 않다. 사람들이 전하는 것을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은 사람들은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아무리 말해 주어도 절대로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단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지도 않지. 그러니 누구든지 살아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못을 뉘우쳐야 한다!”

부자는 살아 있을 때 거지 나사로를 도와주지 않았어요.

이웃을 사랑할 줄 몰랐던 거예요.



81Page

이 부자처럼 이웃을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